

특집 북한도시연구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 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건축기술의 전환\*

1950년대 북한의 정치 상황과 평양

Efficiency Improvement in Urban Construction and Transition of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Pyongyang

김태윤\*\*

본 연구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공간, 특히 '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월 전원회의 사건 전후 평양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인민경제 3개년계획을 초과 완수한 북한은 새로운 경제계획 수립과 더불어 평양의 도시계획의 방향성 또한 수정해야 했다. 인민경제계획 3개년 기간 동안 경제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된 평양의 도시계획은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을 재정비하고, 상징(중심공간), 즉 김일성광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경제계획하에서는 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이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김일성이 강력한 중앙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자, 평양의 도시건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복구 시기에 집중했던 공간 이외의 공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을 설계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립식건축방식을 택하였다. 조립식건축방식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채택했던 시공방식이었지만, 북한의 경우 이 시공방식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 받아들였고, 그 결과 '평양속도'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분석할 때 주로 '평양속도'와 '조립식건설'에 집중하여 '성과의 시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기를 '찬란한 성과'의 시기로 결론짓기에는 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이 존재하며, 성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인민경제 5개년계획 기간의 정치상황과 도시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까지도 기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평양속도'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이 시기를 재검토하고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김일성의 강력한 중앙집권이 완성한 평양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552)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kty3426@naver.com)

주요어: 8월 전원회의 사건, 평양속도, 평양재건, 조립식건축, 북한도시계획

## 1. 머리말

한국전쟁 이후 인민경제 3개년계획을 초과 완수한 북한은 새로운 경제계획 수립과 더불어 평양의 도시계획의 방향성 또한 수정해야 했다. 인민경제계획 3개년 기간 동안 경제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된 평양의 도시계획은 폭격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을 재정비하고, 상징(중심공간), 즉 김일성광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경제계획하에서는 도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이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정전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과 농업협동화 추진을 둘러싼 경제노선 투쟁이었다고 설명하는 연구(이종석, 2003; 서동만, 2005; 윤경섭, 2008; 백학순, 2010)와 해방 직후부터 있었던 패권 경쟁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설명하는 연구 경향(Dae-Sook Suh, 1988; A. Lankov, 1956)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선행연구들의 논점들을 정리하고 북한과 중국, 소련의 1차 사료를 재분석한 김규범(2019)은 8월 전원회의사건을 북중소 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이후의 경제계획은 최근 북한사연구에서 분석되고 있다. 과거 서동만(2005)의 연구에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하여 조수룡(2018)은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과정을 '자력갱생'경제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주호(2022)의 연구는 이러한 '자력갱생' '자립적 경제체제'가 불러올 수 있는 '폐쇄경제'의 오해를 재고하고 당시에 이루어진 대외적 분위기를 살펴봄으로써 냉전기 북한을 이해하는 시야를 확장하였다. 평양의 전후 재건 상황을 도시와 건축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임동우, 2011; Park, 2016; Gunsoo Shin·Inha Jung, 2016, 김민아, 2018; Myengsoo SEO,

2021) 다만 이들의 선행연구는 건축기술적 측면과 당시 경제적인 상황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 상황과 도시의 재건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 즉 여러 정치적 사건과 도시재건, 도시미화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이종겸 외의 연구가 있다(이종겸·정현주·김희정, 2021). 본 연구는 김일성의 통치 기간(1953~1970년) 있었던 도시미화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권력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종겸 외의 연구는 약 20년 동안의 평양의 도시미화담론을 추적하여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도시재건의 방향성을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지만, 전후 이루어진 경제개발과 여러 사건들을 기준으로 평양의 도시재건상을 더 미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인한 건설계의 숙청의 분위기가 종식된 1958년을 중요한 시기로 해석한다. 1958년 이전 평양에는 중심공간에 계획이 집중되어 이외의 공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공 방법도 일제시기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8월 전원회의 이후 조립식건축방식을 도입하면서부터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변하게 되었고, 더 효율적인 주택건설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설계 분야에서는 표준설계와 주택구획계획, 시공분야에서는 1층~5층까지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단 흐름식' 시공방법을 적용하고 건재생산에서는 경량콘크리트가 새롭게 연구·개발되어 평양의 도시계획에 적용되었다. 북한에서 현재까지도 전후 복구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평양속도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성과'에 대한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평양연구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정치상황과 평양 도시계획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김일성이 강력한 중앙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자, 평양의 도시건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후 복구 시기에 집중했던 공간 이외의 공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건축을 설계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립식건축방식을 택하였다. 조립식건축방식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채택했던 시공방식이었지만, 북한의 경우 이 시공방식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개편

하여 받아들였고, 그 결과 14분에 아파트 1호를 짓는다는 ‘평양속도’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분석할 때 주로 ‘평양속도’와 ‘조립식건설’에 집중하여 ‘성과의 시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기를 ‘찬란한 성과’의 시기로 결론짓기에는 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이 존재하며, 성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인민경제 5개년 계획 기간의 정치상황과 도시계획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까지도 기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평양속도’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이 시기를 재검토하고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김일성의 통치 기간 형성된 평양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건설 부문의 교조주의 비판

1954년~1956년까지 수립하였던 인민경제 3개년계획을 초과 달성한 북한은 1957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전 계획과 같이 평양의 도시계획은 경제계획과 발맞춰 추진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면서 진행되었다. 이는 5개년계획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1956년 이후 평양의 도시계획과 경제계획의 수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서동만, 2005; 조수룡, 2018)

8월 전원회의 사건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언급한 1955년 4월 테제가 발표되기 이전, 3개년계획 조기 완수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다. 4월 테제 발표 이후 모스크바에 방문한 김일성은 소련공산당으로부터 경제계획 이행과 농업협동화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과 집단지도체제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소련 방문 이후 김일성은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결론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조수룡, 2018). 가장 먼저 이루어

진 조치는 북한 내에 파견되어있던 소련계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계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김일성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배제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1956년 4월 23일 열린 3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가 김일성의 측근들로 구성되고 연안계와 소련계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었다(서동만, 2005).<sup>1)</sup>

이에 반발한 소련계와 연안계 인사들은 1956년 6월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떠난 이후 북한주재 소련대사 이바노프와 만나 당내에 조성된 정세를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였다.<sup>2)</sup> 그리고 김일성이 평양을 비운 사이 최창익<sup>3)</sup>은 자신을 중심으로 당내 비판세력을 결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귀국한 뒤 이루어진 8월 30일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반대파들은 행동에 나섰다. 윤공흠이 예정에 없던 발언권을 요청한 뒤 김일성의 개인승배, 1955년 양곡수매사업으로 인한 식량난, 인민 생활의 저하 등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최용건, 허성택 등을 통해 저지되었고,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김일성을 옹호하고 반대파를 비난하면서 8월 전원회의 사건은

- 
- 1) 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를 살펴보면 당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최용건, 박정애, 박금철, 정일룡, 김창만으로 전원이 김일성의 직계 추종자들로 구성되었다(서동만, 2005: 548).
  - 2) 1956년 6월 4일 이바노프는 육류가공공장의 노동력증원을 위한 회의 때 최창익을 만났고, 이때 이바노프가 민감한 질문에 견해를 불분명하게 밝히는 최창익의 태도를 보고 6월 8일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5일 최창익은 회동을 요청하는 편지를 김승화를 통해 전달하였다(조수룡, 2018: 146).
  - 3) 최창익(崔昌益, 1896~1957)은 1896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여 1925년 와세다대학 정경과를 졸업하였다. 서울 청년동맹을 가담하고 조선공산당 통합문제에 모스크바에 파견되었으며 소련에서 동방노동자대학을 수료한 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다. 1942년 조선 독립동맹의 부주석이 되었으며 1945년 8월 북한으로 돌아왔다. 1946년 1월 당시 신민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8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거친 뒤 1947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겸열국장, 194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과 재정상을 지냈다. 1952년 부수상을 지낸 뒤 1954년 재정상, 1955년 국가검열상, 1956년 부수상을 역임한 뒤 박창욱, 윤공흠 등과 같이 반당 반국가 종파분자로 비판받고 당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한 뒤 문화선전성 문화유물보존국장으로 좌천되었다가 1957년 반당종파행위의 혐의로 숙청되었다(중앙일보사, 1983: 422).

일단락되었다(서동만, 2005: 560~562).

8월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은 9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되었고 8월 전원회의의 사건의 중요 인물들은 현직에서 파면됨과 동시에 당내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였고 망명한 윤공흠,<sup>4)</sup> 서휘,<sup>5)</sup> 리필규<sup>6)</sup>는 당에서도 제명당하였다(서동만, 2005:562~563). 그 결과, 3개년계획 때부터 중공업 우선 노선을 따라 경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김일성은 당내 비주류 세력들의 비판을 고려하여 경제계획안을 수정하였는데(서동만, 2005:620~621), 이는 8월 전원회의 이후 비주류 세력들이 제거됨에 따라 다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노선에 입각한 계획으로 수정되었다(조수룡, 2018:173).

김일성과 당내 주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안은 1956년 12월 11~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각결정 117호」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 1957년도 1년의 계획만을 작성하였는데, 8월 전원회의의 영향으로 소비재

- 4) 윤공흠(尹公歙, 1904~미상): 1904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1943년 중국 조선독립동맹(연안) 간부를 역임한 뒤 1945년 11월 평양으로 들어왔다. 1952년 11월 재정상, 1953년 11월 정부대표단으로 중국 방문, 1954년 재정상에서 해임되고 상업상을 맡았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제3회 대회), 1956년 8월 박창익, 박창욱과 함께 김일성을 비판하여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8월 전원회의). 그러나 1956년 9월 임시전원회의에서 소련과 중국의 조정을 받아 조선로동당 당적이 복구되었으나 리필규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 5) 서휘(徐輝, 1916~1993): 191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1943년 연안조선독립동맹 간부를 지내고 1945년 10월 평양으로 입국하였다. 1950년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부장, 1953년 조선 직업총동맹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1955년 10월 국가검열부상을 맡았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제3회 대회), 1956년 5월 당시 조선직업총동맹위원장을 맡았고, 1956년 8월 중앙당전원회의에서 연안파와 윤공흠 일파의 반당연설에 참여하였고, 출당된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外務省 アジア局, 1967: 153~154).
- 6) 리필규(李弼圭, 1909~미상): 1909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1940년 중국공산당 팔로군에 입대하였다. 1943년부터 연안에 있는 화북조선독립동맹 중앙위원으로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하였다. 1945년 11월 북한으로 입국하여 1947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 중앙위원, 1952년 3월에 내무부상을 역임하였다. 1956년 4월 내각직속 건재공업국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위원을 지내다가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당시 연안파 최창익, 윤공흠 등과 함께 반당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조선로동당에서 제명된 후 중국으로 망명했다(外務省 アジア局, 1967: 41~42).

중시방침을 수용했던 기존의 경제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침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려 했기 때문이었다.<sup>7)</sup> 이에 따라 1차 경제 5개년계획은 1957년 공업 생산을 1956년의 예정 실적보다 21% 더 높일 것으로 결정하였고(평양향토사편 찬위원회, 1957: 223), 도시계획 및 건설 사업 또한 이에 호응하여 건설의 공업화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건설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멘트 공업과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공장들의 생산 효율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원재료는 절약하는 것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건설의 공업화는 1956년 1월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언급된 이후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사항에서도 언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설계의 표준화·규격화, 시공의 기계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정책이 적용되고 있었다. 12월 전원회의 다음 날인 1956년 12월 14일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도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3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평양시 복구사업에 대한 결함들을 먼저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결함들은 아래와 같이 언급되었다(《건축과건설》 1, 1957a: 7).

1. 총계획도는 인접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옳게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구역들과의 연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2. 가장 기본으로 되는 구획조직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한 조직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도식적인 취급을 하였다.
3. 도시 내 녹지 체계가 옳게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그의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였다.

---

7) 5개년계획의 작성이 지연된 데에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는데, 먼저 원조액이 삭감되어 자금을 주로 국내에서 의존해야 했으며, 두 번째는 경제 논리상 인민 소비생활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공업우선 발전론은 상대적으로 소비재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인민들의 화폐구매력 증대에 상응하도록 소비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서동만, 2005:622~623).

4. 도시 총인구수와 건설의 순차성, 건축 밀도 및 도시교통과 도시의 건축적 형성 등 해당한 요소들을 타산하여 층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였다.
5. 주민들을 위한 봉사망 체계가 옹계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에 있어서 허다한 불편들이 예견되고 있다.
6. 도시건설의 경제성 문제를 심오히 연구하지 못하였으며 총계획 설계에 있어서 경제적 타산이 미약하였다.
7. 고귀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는 평양시의 총계획도 작성에서는 지형적 조건과 조성된 건축적 전통들을 옹계 살리어 도시전체의 건축적 형성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 문제의 해결이 극히 부족하였다.

요약하자면 당시 건축가들의 형식주의적 설계 방법을 도시설계에 적용하여 평양의 도시계획이 주변 지역들의 계획과 연관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계획이나 주택구역의 생활조직 등에서 통일된 건축 구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건축자재와 도시계획 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결함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1956년까지 강조해 왔던 건설의 표준화와 자재의 절약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제반 결함들을 분석하고 여러 토론들이 오고 간 이후 건축가동맹은 설계행정의 일원화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그룹을 조직할 것과 강습회, 합평회 등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건축과건설》 1, 1957a :8).

다만 12월 전원회의가 마무리된 다음 날 제3차 전원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맹 차원의 결정에서 당 중앙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3차 전원회의는 3개년 기간 동안 설계사업 내용을 총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한 달 뒤인 1월 28일 조선건축가동맹은 제4차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였다. 제4차 전원회의는 12월 전원회의의 결정 정신에 입각하여 설계에서의 교조주의와 낭비 현상을 퇴치할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1956년 12월 21일부터 1957년 1월 9일까지 평양 시내 8개 직장에서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토론 과정에



서 설계에서 낭비가 있거나 교조주의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을 조사한 뒤, 그 이유들을 정리하였다(《건축과건설》 1, 1957b: 2).

건축 분야에서 교조주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건축과건설》 1, 1957b: 3).

1. 선진국가의 자료라고 해서 설계의 기초문헌인 설계기준들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또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2. 외국 설계들을 덮어 놓고 좋은 것으로 치고 무수정으로 써먹자는 것
3. 선진 국가에서 취하는 건축 수법이나 구조처리방식, 기술처리 방식이나 틀 그대로 우리나라에 재현하자는 것
4. 생활양식에 덮어 놓고 남의 것을 본받자는 것
5. 자기의 기술적 유산이나 풍습을 그것이 오직 제 것이라고 해서 설계에서 고집하는 것

이에 따라 기존에 지어진 종합청사 1호와 2호, 대동문 영화관, 평양 역사, 노동자 아파트 등까지도 비판 대상 설계물로 구분되었다.

위의 내용은 제4차 전원회의 첫날인 28일 보고되었는데, “지난 기간의 건축 설계에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구현시키는 것이 미약했으며, 선진 국가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교조주의와 낭비를 조성했다는 점”을 반성하는 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건축과건설》 1, 1957c: 38). 28일 회의는 오전에만 진행되었고, 29일에는 주로 동맹원들의 토론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동맹원들이 교조주의와 낭비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을 한 이후에 이를 시정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민족주의적 형식과 당시 소련 및 동유럽에서 예술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건축에 적용할 것을 언급하였다(《건축과건설》 1, 1957c: 39). 1956년에 「설계의 표준화, 시공의 기계화, 건재생산의 공업화」가 강조되었다면, 1957년에는 이에 더하여 「설계에서의 교조주의와 낭비현상 퇴치」가 강조되기 시작한

〈표 1〉 1957년도 《건축과건설》 1호 목차

	주제	제목	저자
1	논설(정론)	설계에서 교조주의와 낭비현상을 퇴치할 데 대하여	
2	도시건설부문	평양시 도시 계획 설계 및 그 실현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삼룡
3		주택건설 구획에서의 학교 건물 배치에 대하여	리원명
4	주택건설부문	토벽식 건축에 대하여	리태진
5		표준 주택설계에 대하여	남상진
6	기타	설계에서 교조주의 낭비현상을 퇴치하기 위하여	-
8		동맹중앙위원회 제 3차 전원회의 결정서	-
9	독자논단 (건축가들에게 주는 말들)	민족적 양식을 갖춘 대결작을!	백남운
10		경제적이고도 살기에 편리한 건물을	박무
11		위지와 주택관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라	박용관
12		도시계획에 있어서 고건축을 존중하여 주었으면	정관철
13	고건축	화성 수원성곽건축에 대하여	윤충현
14		고건축 도록(4)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교조주의와 낭비현상에 대한 비판 논문

자료: 저자 작성

것이였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는 실천으로 이어져 1957년부터 건설 분야 연구에서는 교조주의와 낭비현상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주택건설과 도시계획에 적용할 표준설계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건축가동맹 기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957년도 3월에 발행된 《건축과건설》 1호의 목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건축과건설》 1, 1957a: 1~39).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잡지의 반 이상을 설계에서의 교조주의와 낭비현상에 대한 비판과 표준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조선건축가동맹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상진, 리원명, 리태진의 논문만이 연구의 형태를 갖춘 글이였다.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은 1957년도 1호 잡지부터 「독자논단」이라는 지면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 「독자논단」은 1957년도 1월 5일 평양 시내의 여러 인사들에게 발송한 설문조사로 실제로 많은 인사들이 조선건축가동맹 측으로 답신을 보내왔으며, 이후 《건축과건설》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특집으로 자리 잡았다(《건축과건설》 1, 1957a: 27).

〈그림 1〉 1956년도 대동문 영화관과 노동자 아파트



자료: 《조선》, 4월 1호 인민조선사(1956: 20).

당시 건축가동맹 측에서 제시한 설문은 아래와 같았다.

- 전후 3년간에 우리나라에 신축한 건물 중에서 어느 건물이 제일 당신 맘에 드는가?
- 이미 건설된 건물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은 어떤 것인가?
- 당신은 앞으로 어떤 건축물들이 건설될 것을 희망하는가?
- 현재 건설된 주택(례 : 보통문거리, 동평양, 서평양 주택구역 기타 노동자구 주택 및 기타 주택일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건축에서 민족적 형식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가?

〈표 1〉 9번~12번에 해당하는 글이 평양 시내 인사들이 조선건축동맹 측에 보낸 답변이다. 각각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가장 많은 의견은 평양의 건축물에 민족적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양풍의 외관에 낭비된 공간과 복잡한 미장을 많이 적용

한 많은 대동문 영화관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8)</sup> 이 외에 주택에 대한 의견은 온돌의 적용이나 방음의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다층 주택이 모두 같은 외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가 단조롭다는 의견과 주택지역 주변 위생에 관련한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당시 평양의 주요 인사들 또한 12월 전원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교조주의와 건설재료의 낭비를 가장 많은 지적사항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1957년부터 지면상에서 교조주의 낭비주의와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승화(건설상),<sup>9)</sup> 리필규(건설공업국장), 박의완(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sup>10)</sup>이었다. 이들은 모두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반당세력과 관련되었던 인물들로 북한의 정치구조를 흔들었던 숙청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서동만, 2005: 620). 8월 전원회의 직후에는 중국과 소련의 압력에 의해 당적이 복귀되는 듯했으나, 11월 헝가리 사태 이후 당 숙청 작업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이에 내각건설 공업국 당위원회에서는 리필규에 대한 비판, 건설성 당위원회에서는 전 건설상 김승화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이루어졌고 비판의 강도도 윤공흠을 비판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서동만, 2005: 621). 그리고 《노동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도 이들은 공개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는데, 1956년 12월 24일에는 리필규에 대한, 12월 28일에는 김승화에 대한 비판 일색인 기사가 실렸다. 리필규는 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돌격

8) 중구역 당위원 박용관과 중앙통신사 직원 박무, 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용준이 대동문영화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9) 김승화(金承化): 소련에서 성장하여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후, 1948년 3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을 거쳐 1951년 내각의 도시건설상을 역임하고 1955년 국가건설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상이 되었다. 1956년 8월 건설상 해임과 동시에 최창익 사건으로 숙청, 소련으로 귀국하여 사망했다(外務省 アジア局, 1967: 99).

10) 박의완(朴義琬): 소년 시절 소련으로 이주하여 대학교육까지 마친, 1945년 북한으로 입국하여 1948년 철도상을 역임, 1954년 경공업상 겸 부수상을 역임하고 1947년 국가건설 위원장을 지냈다. 1958년 3월에 박창옥 등의 반당중파사건에 연루되어 부수상을 해임, 로동당에서 제명 처분, 소련으로 망명했다(外務省 アジア局, 1967: 255).

생산을 강조하여 노동자들을 혹사시켰으며 노동대중을 당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자들의 의견을 당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김승화는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건재생산의 공업화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건설 분야 간부들의 숙청은 1957년 상반기 건설사업의 분위기에도 반영되어 건축가들은 12월 전원회의와 조선건축가동맹 제4차 전원회의에서 강조했던 조립식 건설과 건재의 공업화에 대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57년 1.4분기 동안 주택을 250여 세대 완공하였으며 평양건설국 산하 건설 트레스트에서는 건설 조립계획을 기존에 설정한 목표보다 초과하여 108.2%라는 수치로 완수하였고, 각종 건재의 생산 또한 109%로 초과 완수하게 되었다.

### 3. 「민주수도 복구건설 촉진운동」과 조립식 건축의 도입

1.4분기 평양건설의 분위기는 「내각결정 38호」가 채택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4월 25일 북한 내각은 해방 12주년 기념 준비를 위한 「민주수도 복구 건설 촉진 운동을 조직 진행함에 관한 결정 제38호」를 채택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58: 226). 결정 내용에 따르면 1957년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을 「8·15해방 12주년 기념 민주수도 복구 건설 촉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평양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건설상이었던 최재하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양시 인민위원회 정연표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위원들로 공사지도 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결정되었다.

위원회 조직이 결정된 3일 후인 28일 ‘평양시 복구공사 지도 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 간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졌고, 평양시

〈그림 1〉 평양에 신설되는 공공시설 및 주택 계획



자료: 《노동신문》(1957.05.05.), “민주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하여!(새로운 주택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 휴식시설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위원회 서울현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지도기구를 구성하였다. 평양시 복구의 실제적인 공사는 1957년 5월부터 진행되었고, 평양 소재 각지 대학생, 시내전문학교 학생·정무원들이 서평양, 남평양 등의 각종 도로 건설 및 콘크리트 포장, 서평양 및 모란봉 등의 10만 4천 6백m<sup>2</sup>의 유보도 건설, 서평양과 동평양 및 보통문 일대의 오수 간선 및 1만 7천 511m의 하수도 신설 등의 공사에 투입되었다(평양향토사편찬위원회, 1957: 514). 「민주수도 복구 건설 촉진 운동」은 1954년 전후 복구기에 수도건설이 미진하게 진행됨을 비판하며 만든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 대중운동이었다. 따라서 평양 시내 시민들이 노력경쟁방식하에 총동원되어 기한 전에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1997: 223).

예를 들면 시설 부문을 담당한 평양 제5건설 트레스트에서는 서평양 유보도로, 동평양 6호 간선도로, 외성동 도시시설공사 등 19개 대상 과제를 맡았고, 4월 30일에는 이를 위한 총결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을 비롯한 학교

와 공공건물의 건축공사들을 위해 1,200여명의 노동력 동원계획을 세웠으며 학생, 시민, 인민군, 직장 서클 단체의 구성원들까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동원계획에 따른 성과는 5월 1일부터 매일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 사업에 참가하는 각 단체들의 각오나 모범사례 등도 함께 소개되었다.

그리고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시기와 마찬가지로 10일 단위로 작업 성과들을 보고하였으며 평양시 복구 공사 지도 위원회에서 《노동신문》 지면을 통해 증산경쟁운동을 총화하고 모범 단체(대학, 기업소)들을 표창하였다. 해방 12주년을 기념하여 8월 중순 완료를 예정했던 ‘민주수도 복구 건설 촉진 운동’은 7월 말 55개 대학, 전문 및 기타 학교 학생들과 군인들 연 43만여 명이 참가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결과에 대한 총화는 8월 11일 모란봉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최재하 건설공업상은 촉진운동 기간 동안 80만여m<sup>2</sup>의 주택, 학교, 병원, 공장과 23,800m의 우수 및 하수도관부설 공사, 7,000여m의 도로 공사를 준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방 12주년 기념식을 무사히 치른 북한은 8월~9월 최고인민회의의 2기 선거를 증산 경쟁운동의 계기로 삼아 다시금 증산 투쟁을 실시하였다. 1957년 전개된 건설사업들은 조립식 건물들을 건설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의 증산과 공사기간의 단축이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대두되었다.<sup>11)</sup> 이 시기 중공업우선 노선에 따른 건재생산의 공업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생산된 건재와 호응하여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표준설계의 수립과 조립식 건설방법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혁신을 꾀하기 위하여 북한은

---

11) 1957년 10월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의 보고에 의하면, 1953년도에 비해 1957년 강재는 51배, 시멘트는 33배, 벽돌은 41배, 기와는 117배에 달하며 제 재량은 4배로 증대되었다고 한다. 《노동신문》, 1957.10.19., “〈기본 건설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10월 전원회의에서 한 박금철 동지의 보고”.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반당반혁명종파 분자들과 보수주의, 소극분자들은 조립식 건설의 생활력이 현실적으로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시공방법을 고집하면서 건설의 급속한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중략) 1957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1997: 225)이라고 언급하였다. 조립식 건설공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던 본 전원회의에서 실현하려고 한 사안은 총 3가지였다. 첫째는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할 것이었고, 둘째는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 셋째는 기본 건설 부문 내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이었다.

첫 번째 사안인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함에는 1954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오던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설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설계의 표준화·규격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리홍구, 1957: 3). 기본적으로 설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부재인 벽체나 창문, 지붕틀, 문 등의 재료를 통일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자재를 생산하더라도 잉여 자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재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규격이 정해진 자재들이 생산되고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를 크레인으로 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공방법은 벽돌을 일일이 쌓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하고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10월 전원회의는 조립식 건설방법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다. 1954년도부터 시작된 바 있는 조립식 건축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었으며 기술개발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지적한 10월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9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건축·건설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건축과건설》 6, 1957e: 49). 토의 결과, 이들은 10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11월 말까지 연구하여 내각 결정 실천 대책을 매개 직장반들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결정의 실행을 위해 동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표 2〉 1957년 12월 발행 《건축과건설》 6호 목차

	제목	필자
1	10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우리 건축가들의 전투적 과업	-
2	설계의 표준화와 그의 실천 정형에 대하여	리홍구
3	농촌주택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김영환
4	당의 건설 조립화 정책을 산업건설 분야에서 관철시키자	김상은
5	시공 조직 설계 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	석영근
6	건설의 기계화를 위하여 우선 소기계화로부터 시작하자	안태윤
7	소비에트 건축 발전의 길과 그의 제문제	데:효도자예브
8	소도시 건설 계획과 주택 계획 및 건축식 구성에 대하여	림인옥
9	지붕재료로서의 석비레 기와에 대하여	리태진
10	조립식 건설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리수준
11	도시계획에서 도시 룹화의 몇가지 기본문제	윤창식
12	조선의 목구조 발당사 개요	량병수
13	개성을 견학하고	김양봉
14	조선 고건축 도록(9)	-
15	동맹소식	-

자료: 조선건축가동맹, 1957, 《건축과건설》 6, 조선건축가동맹 전체 목차

개최<sup>12)</sup>를 예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과건설》 6호를 조립식 건설을 주제로 한 전문호로 기획할 것과 기관지 편집위원회 개편을 결정하였다.<sup>13)</sup>

실제로 1957년 12월 발행된 《건축과건설》 6호의 목차를 정리한 〈표 2〉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십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글인 「10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우리 건축가들의 전투적 과업」에서부터 ‘1958년도부터 조립식 건물의 비

12) 주로 표준 설계 작성 사업을 강화하며 설계에서 낭비현상과 교조주의를 근절하며 당의 건설 정책 실현에서 내포한 일련의 결함들을 시급하게 청산하며 그를 총화분석하고 그의 시정대책과 당의 결정 실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업을 혁신할 실천적 단계를 조성하도록 할 것.

13) 편집위원회는 김정희(책임편집위원), 방덕근, 최태희, 강처한, 이홍구, 한덕건, 오영희, 박황식, 리효섭이 결정되었다.

중을 산업건설에서 20%, 도시건설에서 50%로 제고시킬 것'을 건축가들의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표준설계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것 또한 결의하였다(《건축과건설》 1, 1957f: 1~2). 이후의 글들 또한 비슷한 맥락하에 표준설계와 조립식 건축의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사안인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은 사실상 도시건설사업에 전 인민적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 당시 박금철의 보고를 보면 "노동자, 사무원,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 누구를 물론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제공하고 노력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합하여"라는 문구가 나온다. 즉 건설 및 건재공업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도시건설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건재를 이용하여 도시를 건설하라는 것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결정이 실제로 구현된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읍 민청에서는 읍을 지날 때마다 건설재료용 돌 5개를 운반한다는 '돌 다섯덩이 운동'이라는 것을 창안하여 진행하였고, 흥남의 본궁 화학 공장 노동자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6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방의 성과는 《노동신문》 1면에 「10월 전원회의 결정 실천을 위하여」라는 특집으로 보도되었다.<sup>14)</sup>

세 번째로 언급한 '기본 건설 부문 내 당 단체를 강화하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개선'은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상·의식적 제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박금철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석탄 공업성, 건설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이 기본 건설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1957년도 상반기 건설 조립작업 계획은 기계공업성 78%, 건설 건재 공업성 86%, 금속공업성 88% 총체적으로 89%밖에 실행하지 못하였고, 각 도 지방건설 계획은 67%를 실행한 데 불과

14) 10월 전원회의 이후 11월 초까지 1면에 보도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는 되었지만, 11월부터는 <10월 혁명 40주년>과 관련한 특집기사가 주로 1면에 실렸다.

합니다”라고 완수하지 못한 건설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이 생기게 된 이유를 ‘넓은 시공 방법과 넓은 사상의 잔재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약하게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비판의 대상은 1차적으로 앞서 언급한 8월 전원회의 사건 연루자들(김승화, 리필규)이었고, 2차적으로 그들을 따르던 이하 건축기술자들에게 향하는 것이었다. 앞서 1957년 초에 이루어졌던 비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10월 전원회의 이후에는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었으며 비판의 대상 또한 박의완, 오삼룡 등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건축과건설》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 1957년 1호가 주로 설계에서의 낭비와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10월 이후에 출간되었던 5호의 경우 거의 모든 글에서 김승화, 리필규에 대한 실명 비판을 하고 있었다.<sup>15)</sup> 비판의 경향은 중공업 우선노선을 반대했던 반당중파분자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건설상이나 건재공업상의 자질,<sup>16)</sup> 사업 작품 면에서 과거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사례도 있었다.<sup>17)</sup>

그동안 사업 작품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바탕으로 10월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건축·건설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개편되었다. 건설전문가들은 각 공사에 조립식 건축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고, 이는 1958년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보고되었다.<sup>18)</sup> 제6차 전원회의는 전 동맹원들이 1957년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15) 5호뿐만 아니라 1957년 10월 이후에 출간된 《건축과건설》의 일부의 글에서 반복·지속적으로 김승화, 리필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16) 특히 건설에 대하여 거의 백지인 김승화는 일부 설계가들을 무원칙하게 비호한 나머지 그들을 유아독존과 자고 자대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당성을 마비케 하여버렸다. 때문에 이 자의 총애를 받은 몇몇의 설계가들은 코가 높아져 무책임하게도 교조주의 적으로 설계를 해치우고는 자가 도취하여 제 아니면 평양의 건설은 곤란히하는 망상까지 빠져버렸다(오영섭, 1957: 58).

17) 김승화가 기술자들이 작성한 간부 주택 시공 조직설계를 무시하고 건설장에서도 3중운반 등으로 효과적인 운반사업을 도입하지 못하여 노력을 낭비했다고 평가했다. 조룡규, 「건설의 공업화와 경제절약에 대한 몇가지 문제」, 《건축과건설》5, 1957, 20쪽.

자기비판을 우선시하였고, 이때, 김승화와 리필규 이외의 여러 건축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평양시 책임 건축가 오삼룡<sup>19)</sup>과 그 산하에서 일하던 건축기사장 박봉서 등이었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 강처한과 한제선 등 많은 건축가들이 자기 비판토론을 진행하였지만, 오삼룡은 자기비판 자체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한 차례 반려당하였으며 이후 다시금 더 강하게 자기비판과 김승화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여 자기비판이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기비판의 순서를 가진 후 건축가동맹 제6차 전원회의는 10월 전원회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 결정된 과업은 첫째로 동맹조직을 사상적으로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 핵심지도부를 재편할 것, 두 번째로 당 정책의 침투사업을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 집행하기 위하여 동맹원들의 사상 동태를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설계에서 경제성 문제 또한 토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 세 번째로 동맹의 일체 역량을 발동시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사업에 총공세를 취할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경량골재에 대한 문제를 1958년 안에 해결할 것과 향후 사업의 성과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중간 총화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제6차 전원회의의 3일 후인 1월 18일 김일성은 평양시 설계일군들과 담화를 진행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59: 342). 이때 김일성에게 건설종사자들이 결의한 내용 중 중요한 지점은 건설원가 15%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계하던 주택의 층고를 10cm 정도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된 개별 목욕탕을 공용 목욕탕으로 재설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김일성은 “우리나라 공업은 발전되고 생산은 미증유의 양양



- 18) 조선건축가동맹 제6차 전원회의는 1958년 1월 15일 「동맹소식, 동맹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진행」, 《건축과건설》, 1호(1958, 39쪽).
- 19) 오삼룡은 1957년까지 평양시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일례로 《건축과건설》에 오삼룡, 「도시 건설계획 사업에서 금후 제기되는 몇가지 과업」, 《건축과건설》 2호, (1956, 11쪽); 오삼룡, 「평양시 도시계획설계 및 그 실현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과건설》 1호(1957, 8쪽)를 게재하였다.

을 이루고 있는데 건설부문은 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값싸고 쓸모 있는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반당 중파분자들의 여독에 대하여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1958년을 건설 일대의 전환의 해라고 언급하며 1958년 1월 한 달 동안 만 하여도 무려 4차례에 걸쳐 평양시 건설설계자 및 노동자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1997: 226).

김일성의 담화 한 달 후인 2월 10일 북한 내각에서는 내각 결정 제17호 「평양시 복구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관하여」를 채택하여(조선중앙통신사, 1959: 343) 국가 계획위원회, 경공업성, 기계공업성, 건설건재 공업성 등의 각 성(국)이 평양건설과정에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59: 77~78). 그리고 내각 결정에 호응하여 2월 12일~13일 평양시 건축설계가들은 「평양시 건설일군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957년 10월 전원회의~1958년 2월 10일 동안 건설사업에서 절약한 건재의 총액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절약 총액수는 4억 8천 150여 만 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렇게 절약한 금액으로는 8,289세대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sup>20)</sup> 그리고 앞서 김일성이 언급했던 “값싸고 쓸모 있는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할 것”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만 7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꾀기하였다. 그리고 ① 설계, ② 시공, ③ 부재 생산, ④ 건설기계화, ⑤ 골재, ⑥ 건설장에서의 흐름, ⑦ 건설 조직 지도 등 세부 사안들에 대한 공사 기한과 기술연구 과제들을 새롭게 결정하였다.

3월 3일~6일 열린 당 제1차 대표자회에서는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반영하여 수정된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1957~61)계획안」을 채택하였다. 김일성은 이 당대회에서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에 근거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남아 있던 반당세력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김승

20) 구체적으로 절약된 자재를 언급하자면, 시멘트 15,281t, 철근 1,418t, 목재 9,719m<sup>3</sup>, 주철관 1,564t, 가스관 71t, 전선 1,329km였다(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1997: 226).

화, 리필규, 박의완 등의 숙청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건설 부문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부에서 건설 운수부를 분리, 신설하고 담당자로 강원도당 위원장 김원봉<sup>21)</sup>을 임명하였다(서동만, 2005: 827). 건설 부문의 인사정리를 마친 후 내각결정 제34호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할 데 대한 제 대책에 관하여」을 채택하여 조립식 건설 방법을 건설사업 전반에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내각결정 34호의 골자는 건설원가를 절약하는 것과 자재의 대량생산, 건설기술 연구사업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공업 우선 중심노선의 1차 5개년 계획안에 따라 경제 계획이 진행되었지만, 소련 및 동구권으로부터의 원조액과 기술자파견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5개년 계획은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은 자립경제노선을 견지하며 ‘예비’, 즉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잉여자원은 확보하여 원조에서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였다(조수룡, 2018: 183~191; 이세영, 2021: 175~176). 여기서의 예비란 예산과 자재의 절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품생산과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는 것까지 포괄하는 의미였다(이세영, 2021: 178). ‘예비’, 즉 건설사업에 대입하면 “싸고 질 좋은” 건설대책을 찾아내기 위한 증산경쟁의 분위기는 건축 설계자들의 노력을 부추겼고, 이는 조립식주택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이 나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1958년 《노동신문》을 살펴보면 1955년과 마찬가지로 평양건설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는 보통 「민주수도: 평양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민주수도를 더 빨리」, 「더욱

---

21) 김원봉(金元鳳): 강원도에서 태어나 일본 통치하에 함경남도 일대에서 좌익농민운동에 종사하였다가 체포되기를 수회하였다. 1954년 10월 당시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 1956년 4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 (제3회 대회), 1957년 8월 제 2기 최고인민회의의대위원, 1958년 2월 당시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1959년 5월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 중파 분자로서 처벌되었다(外務省 アジア局, 1967: 78).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될 민주수도 평양」, 「평양시 건설자들」이라는 큰 제목 하에 여러 성과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내용은 평양시 도시설계 연구소의 성과와 각 트레스트와 작업반들의 작업능률, 건재생산의 증가 등이었으며 가장 강조한 내용은 ‘초과생산’과 ‘속도’였다.<sup>22)</sup>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토목공사에 도입되었던 증산경쟁운동과 노력경쟁시스템은 보통 기한보다 일찍 준공했을 경우나 100%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 “20일 앞서 준공”, “200% 초과달성” 등 총성과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조립식 건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부터는 몇 세대를 완공했는지에 집중하다가 이후에는 1세대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속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58년 4월 19일 기사를 통해 보면,

“동구역 장진리에서 일하고 있는 교통성 정무원들이 앞서고 있는데, 노동생산능률을 250%이상으로 높임으로써 6월로 되어있던 완공기일을 76일이나 단축하여 4월 15일 현재 국가계획에 예정된 200세대의 주택을 완공하였다. 이는 17시간에 평균 4세대의 집을 지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립식 건축방법에 의해 주택 1세대를 4시간 반 만에

---

22) 예를 들면 1958년 3월 20일 3면에 “민주 수도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자!”라는 제목하에 건설장에 나선 정무원들; 건설장은 학생들의 산교실이다(건설 대학생들의 노력 성과); 상반년간 1028세대의 문화 주택 완공을 위하여(평양 제4건설 트레스트에서); 인민반원들도 토벽돌 생산에 동원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1958년 4월 1일 3면에 “민주수도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로”라는 제목하에 아름다워지는 사택마을, 40여만그루의 나무를 이미 식수; 위생 미화 선전 사업을 진행; 위생환경 개조사업에 나선 동민들이라는 기사가 실렸으며, 1958년 6월 5일 3면기사에는 “기적을 창조하는 민주수도-평양시 건설자들!”이라는 제목 아래 주택 한 세대 조립에 16분!; 질 좋은 부재를 더 많이 생산(건설 건재 공업성 제2건재 공장 분공장에서); 조립 속도를 5배로(평양 제6건설 트레스트에서); 노동 생산 능률을 250%이상 보장(평양시 건설 협조에 나선 중국인 고급 중학교 학생들); 불과 35일간에 150여일분의 작업량 완수(송도 정치경제 대학 학생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5월 1일 기사 「자랑과 영예 떨치는 건설장」에서도 평양시 건설자들이 기중기 1대당 30명이 1일 7~8세대를 지을 것이라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 소개되었고, 5.1절을 계기로 다시 결의한 평양시 건설자들이 10일 동안 1천 3백 세대의 주택을 완공했다는 기사가 5월 14일 보도되었다. 즉,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조립식 건축방법이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건설사업 목표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더 이상 건설 분야의 목표는 '조기완수', '초과완수'에 머물지 않았다. 「설계에서의 표준화·규격화, 시공의 기계화, 건재생산의 공업화」의 목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완공하는 것이 되었다. 14분에 주택 한 호를 조립한다는 '평양속도' 신화의 배경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공간, 특히 '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월 전원회의 사건 전후 평양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평양의 도시개발도 강력한 중앙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소련계와 연안계의 여러 건축가들이 숙청되면서 김일성은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설계의 표준화, 시공의 기계화, 건재생산의 공업화」을 기초로 한 '조립식건설'을 평양의 도시계획의 기초로 삼았다. 특히 1957년부터 1958년도까지 교조주의 타파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건축방식과 새로운 건축양식을 창작해야 하는 과제가 건축가들에게 부여되었다. 이에 건축동맹에서는 조립식건설방식을 위한 표준설계, 전 인민적동원, 기본건설 부문 내 당 단체를 강화를 통해 평양재건을 빠르게 추동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력 분야에서는 '초과 완수'와 '미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미달'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였고, '초과완수'에 대해서는 '모범'으로 표



창하여 노동력과 기술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중앙권력이 이끄는 방식으로 전 국민이 동원된 결과는 1958년부터 등장하는 ‘평양속도’라는 ‘신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원고접수일: 2024.05.14.

1차심사완료일: 2024.06.10.

1차수정완료일: 2024.06.15.

2차심사완료일: 2024.06.17.

게재확정일: 2024.06.17.

최종원고접수일: 2024.07.03.

**Abstract****Efficiency Improvement in Urban Construction and Transition of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Pyongyang**

Tae Yoon Kim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entralized urban development led by a strong central author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capital city, by examining the urban planning of Pyongyang before and after the August Plenum Incident Revisited. Follow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ving exceeded its three-year plan for the people's economy, needed to revise the direction of Pyongyang's urban planning in conjunction with a new economic plan. During the three-year period of the people's economic plan, Pyongyang's urban planning was focused on rebuilding areas destroyed by bombings, particularly the revitalization of symbolic central spaces, such as Kim Il-sung Square. Consequently, under the new economic plan, there was a need for a comprehensive urban redevelopment, which eventually led to the occurrence of the 'August Plenum Incident Revisited.'

After the August Plenum Incident Revisited, with Kim Il-sung gaining stronger central authority, urban construction in Pyongyang took a significantly different approach. Urban planning projects extended beyond the spaces previously concentrated on during the post-war recovery period. The architectural design approach also shifted to embrace assembly-style construction, a departure from previous methods. Although assembly-style construction had been adopted by socialist countries as a construction method, North Korea adapted and customized it to suit its own circumstances,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the 'Pyongyang Velocity' phenomenon.

Existing research has often focused on 'Pyongyang Velocity' and 'prefab construction' when analyzing this period, evaluating it as a 'period of achievements.' However, such a conclusion overlooks the complex politic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as well a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se achievements.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during the five-year plan of the people's economy and urban planning projects, reevaluating the period that still appears miraculous as 'Pyongyang Velocity.' We also take a holistic look at North Korea'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trong centralization under Kim Il-sung, which shaped the urban landscape of Pyongyang.

**Keywords: August Plenum Incident Revisited, Pyongyang Velocity,  
Pyongyang Reconstruction, Prefab Construction, Pyongyang  
Urban Planning**

## 참고문헌

《노동신문》  
《노동자신문》

- 김규범. 2019.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 재론: 김일성의 인사정책과 ‘이이제이’식 용인술」,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 DOI: 10.17321/rnks.2019.22.3.001
-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소구역계획에 관한연구 :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일성 수상과 민주수도 평양시 건설을 담당한 설계 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건축과건설》 1, 1958, 16
- 「동맹 중앙위원회 제9차 상무위원회 진행」, 《건축과건설》 6, 1957, 49.
- 리홍구. 1957. 「설계의 표준화와 그의 실천 정형에 대하여」, 《건축과건설》 6, 3.
- 백학순. 2010.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서울: 한울.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 오삼룡. 1956. 「도시 건설계획 사업에서 금후 제기되는 몇가지 과업」, 《건축과건설》 2. \_\_\_\_\_, 1957. 「평양시 도시계획설계 및 그 실현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과건설》 1.
- 오영섭. 1957. 「설계와 시공」. 《건축과건설》 5, 58.
- 윤경섭. 2008.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세영. 2021.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겸·정현주·김희정. 2021. 「평양시 도시미화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 DOI: 10.17321/rnks.2021.24.2.002
- 이종석. 2003. 『조선로동당연구: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이주호. 2022. 「북한의 공업화와 구상과 북소경제협력 (1953~1970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서울: 효형출판.
- 조룡규. 1957. 「건설의 공업화와 경제절약에 대한 몇가지 문제」, 《건축과건설》 5, 20
- 조선건축가동맹. 1957a. 「동맹중앙위원회 제 3차 전원회의 결정서」, 《건축과건설》 1, 7. \_\_\_\_\_, 1957b. 「설계에서 교조주의 낭비 현상을 퇴치할 게 대하여」, 《건축과건설》 1. \_\_\_\_\_, 1957c. 「동맹중앙위원회 제 4차 전원회의」, 《건축과건설》 1, 38. \_\_\_\_\_, 1957d. 「건축가들에게 주는 말들」, 《건축과건설》 1, 27. \_\_\_\_\_, 1957e. 「동맹 중앙위원회 제 9차 상무위원회 진행」, 《건축과건설》 6, 49. \_\_\_\_\_, 1957f. 「10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우리 건축가들의 전투적 과업」, 조선중앙통신사. 1958. 『조선중앙연감 1954~55』. 226쪽.

\_\_\_\_\_. 1959. 『조선중앙연감 195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77~78쪽; 342~343쪽.  
조수룡. 2018.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앙일보사. 1983. 『북한인명사전』. 서울: 중앙일보.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1997. 『평양건설전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항토사편찬위원회. 1957. 『평양지』, 평양: 국립출판사.

外務省 アジア局. 1967. 『北朝鮮人名録』, 外務省 アジア局.

A. Lankov. 1956.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Dae-Sook Suh. 1988.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ong min Park. 2016. "Free World, Cheap Buildings: U.S. Hegemony and the Origins of Modern Architecture in South Korea, 1953-1960." *Doctor of Philosophy in Architecture in the Graduate Divis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unsoo Shin & Inha Jung. 2016.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Myengsoo SEO. 2021. "Rethink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Culture during its 1950s Post-War Recovery." *Korea Journal*, Vol.61, No.2.